

女學生 服飾이 韓服變遷에 끼친 影響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affect to the transition of Korean clothing
of the clothing of girl students

明知 大學校 生活 科學部 衣類學 專攻
教授 趙 孝 順

Majoring in Clothing, Dept. of Human Ecology, Myung ji Univ.
Prof. : Hyo-Soon Cho

〈 목 차 〉

I. 序論	II. 社會的 背景
III. 女學生服飾의 변천과 韓服	IV.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I observed the important factors of clothing transition - Changes of Korean clothing & reception of Western-style dress - through the survey of the clothing of girl-student during the period of enlightenment(1900~1945) in this study as follows.

- 1) Stop to use of a long hood and an old-fashioned woman shawl(once used to cover the head and upper body when going out).
- 2) Appearance of same colored Korean costume of the upper and lower sides.
- 3) Appearance of a short seamless one-piece skirt with a pair of shoulder girdles.
- 4) Appearance of school uniform, upper white lower black-Korean costume.
- 5) Appearance of school uniform, Western style.
- 6) Appearance of sports-wear.
- 7) Reformation of under-wear.
- 8) Appearance of short hair.
- 9) Appearance of socks & stockings and shoes.

I. 序論

한국복식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양식과 형태를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胡服系의 기본복식인 서민복식과 중국복식의 영향을 받은 양반 상류층 복식과의 二重構造를 이루면서 변함없이 전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표상인 民族服도 국가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內的, 外的, 變遷要因에 의해 변화된다는 服飾變遷의 原則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韓服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開化期에 이르러서는 전통사회의 붕괴와 더불어 복식문화는 전통복식과 洋服의 또하나의 이중구조를 보이면서 급변의 시기를 맞게 되는데 이 시기에 생활복으로서의 한복, 한복과 양복의 혼용한복 변천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연구목적은 이 시기에 특수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女學生 服飾을 고찰해 봄으로서 여학생복식이 한복변천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또한 양장도입에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개화 초기에 설립된 여학교인 梨花, 淑明, 培花, 貞信여학교 등 여학생들이 착용한 교복과 특수복인 체육복과 그 당시 新女性이라고 불리우던 전도부인 들이 입은 일반여성복식들이 한복변천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시기는 근대화가 시작되는 1880년 중엽부터 1945년 해방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근대화의 태동시기이기도 하지만 전통복식이 양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전통복식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화기 복식연구의 선행연구로는 孫敬子の 開化期の 女服, 朴京子の 일제시대의 服飾, 李京子の 해방 36년의 服飾, 俞水敬의, 한국여성양장 변천에 관한 연구, 南潤淑의 한국 女性服飾制度的 變遷過程, 金京姬, 開化期 女性服飾의 변천요인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개화기의 복식현황만을 다루었을 뿐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복식변천에 끼친 영향은 단편적으로 다루었다. 본연구에서는 개화

기와 관련된 많은 관련서적과 논문, 여학교사, 개화기 사진자료와 유물자료를 분석하여 봄으로서 개화기의 여학생 복식이 한복의 변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규명해 보려고 한다.

II. 社會的 背景

1. 社會構造와 價値觀의 변화

우리나라 전통복식은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서구문물 등의 유입, 의식의 근대화 등으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은 물론 복식계에도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남성들은 많은 제도적인 교육의 기회, 사회진출의 기회를 갖고 있었던 사회구조에 비해 여성의 교육은 사회전반에서 내외법과 부덕으로 여겨 많은 제약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1876년 이후 서구문물의 도입과 함께 지식인들간 개화사상이 형성되어 봉건체제와 문벌의 폐지, 남녀평등사상등 새로운 것에 대한 변혁이 일어났고, 자아의식이 싹트면서 이것은 서구의 자유국의 정신과 함께 민족의식이 고취되었다.¹⁾ 또한 기독교, 천주교의 전래도 전통적인 신분계급을 붕괴시켜 여성들에게 근대교육과 사회진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여성의 복식도 이 시기에 등장하는 여학생복, 전도부인들의 복식, 신여성들의 복식의 영향으로 서서히 변화하게 되었다.

2. 女性教育論의 대두

근대화는 儒敎의 女性觀에 의해 심한 규제를 받아오던 여성들에게 의식적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변화의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조선시대 女性教育은 家庭 내에서의 교육만이 존재했고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가정생활 내에 국한된 것이었다. 즉 婦德과 內外法에 의거한 지극히 소극적인 것이었고 사회전반에서도 여성의 교육은 기회가 결여되었고 남성들에 비해 많은 제도적인 교육기관도 없었으며 부

1) 이광건 “한국개화사 연구” 일조각, 1969, p.24.

덕과 내외법이라하여 여성의 행동과 생활에는 제약을 받았으며 이것은 근대복식 발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1884년 甲申政變 이후 甲午更張 등을 거치면서 新敎 宣教師들에 의해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졌다. 갑오경장은 신학문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학문 근대화의 발판이 되게했던 학교법규를 제정했지만 여학생교육의 필요성과 교육기관의 설치등은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독립신문은 최초로 여학생 교육에 대해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여성교육기관의 설치주장등 여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당시 여성에 대한 近代敎育의 실시는 傳統的 儒敎思想에 의해 바깥출입의 제한등 거의 모든 행동의 제약을 받았던 여성들에게 학교에서의 교육은 家庭이라는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서는 의식의 覺醒에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비록 1880년대 말엽의 학교교육은 덕행 등의 가정중심의 교육에 지나지 않았으나 여성교육의 근대화의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1900년대에 이르러 한일합방을 거쳐 光復에 이르는 동안의 근대교육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들의 문맹율의 감소로 인하여 근대적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사회진출의 자신감을 부여하여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증가시켰고, 각분야에서의 활동영역이 신장됨에 따라 더욱더 근대적 의식이 함양되었다.

따라서 內外法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었던 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개선과 新敎育의 도입으로 여성교육의 확대등 사회 전반의 변혁과함께 衣服에 대한 改良案이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服制 변화에 女學生 服飾이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甲午更張 이후 실시된 선교 활동을 주로 하였던 傳道婦人들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통치마와 긴 저고리를 입었는데 이러한 한복은 신여성들에게 호

응을 받았고 나아가 일반여성들의 복식변천을 리드해 갔다.²⁾

이외에 우리나라의 衣類産業도 朝鮮紡織株式會社(1917년)가 최초 설립되었고 京城紡織(주)가 1917년 설립되었다. 면방직 공업과 견방직 공업도 家內手工業에서 기계화 되어가기 시작했다. 그후 1950년대에는 자급기반 형성을 거쳐 1970년대에 와서는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과 업계의 노력의 결과로 고도의 성장을 실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³⁾

III. 女學生 服飾의 변천과 韓服

1. 韓服校服的 출현(1880-1905)

1) 社會的 背景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서구문명과 접촉은 근대의식의 자각을 갖게 했으며, 일본이 군복을 양복화 함으로써 민간인의 양복착용을 자극했고, 개화인사들에 의해 남성복식부터 서양화가 시작되었다. 1884년 갑오의복개혁이 이루어져 1895년 양복착용이 허용되고 단발령이 공포되면서 군복의 양장화가 이루어 졌다. 1899년 외교관 복장을 양복화 했으며, 1900년 4월 17일 문관 복장 규칙을 문관 대례 복제식을 정했으며 제13호 훈장규칙을 정하여 양복을 착용함으로써 신라 28대 진덕여왕이래 조선 509년 까지 착용한 중국식 관복이 구미식 관복으로 변화되기에 이른다.

2) 韓服 校服

모든 여성들이 전통적인 한복을 착용했던 시기(1890년)로 당시의 일반 부녀자의 저고리는 길이는 20cm 정도로 짧았고 진동도 16-22cm 정도로 몸에 꼭 끼었다.⁴⁾ 이러한 것이 근대식 교육을 받은 여학생들과 전도부인의 복식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 鄭世華, 韓國女性史 II, 이화여대 출판부, 1984, p.305.

3) 박길순, 김진규, 과학기술이 한국여성 복식의 변화에 미친 영향, 복식15호, 1990, p.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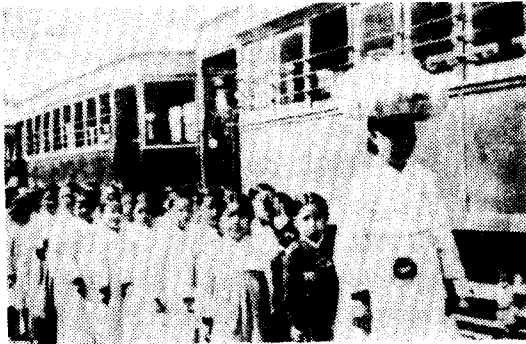
4) 김경희, 개화기 여성복식 변천요인,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94, p.12.

최초의 교복은 이화학당의 아라사제 붉은 목면 옷감으로 만든 上下同色の 치마저고리였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단색 원피스에서 착안된 배색으로 추측되며, 흰색, 옥색 등 엷은 색등의 상하동색에 익숙해 있던 일반인들에게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 이것이 상하를 다른색으로 배색하는 치마저고리의 전통적인 배색에서 上下同色 치마저고리 배색을 유행시키게 되었다. 또한 한복 교복의 嚆矢가 되기도 하였다.

1800년대 까지만 해도 일반부녀자 저고리의 길이는 매우 짧았다. 이때는 외출시에는 반드시 쓰개치마를 썼으며, 1902년에 들어서는 옥색 치마에 흰저고리가 교복으로 착용되었고 여학생들과 신여성들은 두루마기도 많이 착용하게 되었다.⁵⁾



〈사진 1〉 소풍(이화학당 100년사)

2. 洋裝校服의 출현(1905-1910)

1) 사회적 배경

러일전쟁에서 일제의 승리로 한일협상조약 체결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1910년 한일합병까지 외교권 박탈, 사법권, 경찰권 박탈 등으로 망국의 길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국민의식의 민족적 자각이 성숙되어

범국민적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만세보와, 제국신문은 내외법을 개혁 하였고, 복식개량도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고, 많은 여학교 들이 양장 교복을 등장시켰다.

2) 洋裝校服과 韓服

1907년 淑明 女學校에서는 최초로 양장교복을 제정했는데 자주색 원피스에 본넛을 착용하였다.

같은해에 간호원복도 양장화되었다.⁶⁾

이시기부터 한복의 개량안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장옷이 폐지되었다. 근대화에 힘입어 각성된 여성들이나 여학생들은 활동에 불편한 장옷의 폐지를 주장하였는데 그러나 이시기의 저고리 길이가 너무 짧아 장옷이나 쓰개치마없이 출입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⁷⁾

이런 개량안에 힘입어 1908년 梨花學堂, 연동 여학교를 선두로 각 여학교에서는 쓰개치마의 착용을 금하였다. 치마에 있어서도 걸을 때마다 치마폭이 벌어져 행동상의 불편함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치마허리로 가슴을 지나치게 압박하여 신체발육을 저해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량안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韓服改良案은 여학생 교복에서 먼저 발단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

- ① 저고리 길이를 길게한다.
- ② 치마는 신이 나오는 길이로 짧게 하고, 통치마로 하자.
- ③ 색은 上下同色으로 하되 짙은 색으로 한다.
- ④ 옷감과 장신구에 사치를 하지 말자.
- ⑤ 改良韓服이나 洋服으로 하자.

장옷 폐지와 함께 쓰개치마를 폐지한 학교는 梨花學堂과 평양의 崇義女學校였다. 또한 이시기부터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두루마기가 입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학생들의 수는 급격히 줄었고 이에 몇몇 학교에서는 점점 우산을 나누어주어 외출시 쓰도

5) 박정수, 조효순, 한국개화기 여학생 교복의 변천연구, p.169.

6) 김경희, 개화기 여성복식 변천연구,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7) 김영삼, '貞信 75년사', 계문출판사, 1962, pp.135-136.

8) 金美子, 개화기 여자 복식 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 여대 논문집 18호, 1989, p.1396.



〈사진 2〉 팜프도머리(이화학당 100년사)

록 했다. 이는 쓰개치마나 장옷을 벗게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단지 내외를 위해 시작된 것이었지만 훗날 양산유행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과도기적 차림으로서의 검정우산은 여학생들의 유행을 선도하였고 일반 부녀자에게도 파급되었다. 머리모양도 1907년 최활란이 귀국할 때 했던 팜프도어가 등장하였다.⁹⁾ 이 머리의 형식은 비단 양장뿐 아니라 한복에도 착용하였는데 여학생들도 이런 머리 모양을 하였다. 땡기머리의 길이는 점차적으로 짧아졌고 땡기의 색도 학교색을 따라 통일되었다. 이당시 선호한 신발은 미투리였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서양식 구두로 변모하여 갔다.

3. 韓服校服的 制定(1910-1930)

1) 社會的 背景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1920년 일제는 문화정치를 표방했다. 이 시기에 일반 여성들은 쓰개치마의 폐지와 함께 확대되는 여성의 활동으로 저고리 길이는 물론 화장, 진동, 배래 수구 등이 모두 넉넉해졌다. 1930년 전후로 저고리 길이가 긴 길이에 비해 화장이 짧아지고 짧은 통치마가 출현하여 주류를 이루었다.

2) 韓服校服

이시기부터 학생복식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한복의 개량이 있었는데 괄목할 만한 것이 통치마의 출현과 치마허리의 개량이다. 이것은 이화학당의 선교사 Miss Walter와 Pye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복잡한 속옷을 포함한 치마를 여러겹으로 뽕뽕 묶어야 했던 한복에 어깨끈을 달아 허리끈이 풀어져 치마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가슴을 압박하지 않아 위생상, 건강상에도 좋은 어깨허리의 패턴을 고안해 나누어주고 재봉시간을 이용해 고치도록 하였고 체육 시간에 이를 검사하였다.¹⁰⁾ 이렇게 혁신적인 한복의 개량은 후에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사진 3〉 통치마(이화학당 100년사: 유희경, 한국복식사 슬라이드)

한복은 이렇게 학생복식에서 시작되어 후에 유행한 內的 變遷 要因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시작되어 여학생 복식에 반영된 外的 變遷 要因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치마의 길이이다. 치마의 길이는 신발이 나오고 발목이 노출될 정도로 짧게한다. 이것은 양장의 장점을 수용한 것이었다. 1910년 한성여학교에서는 흰색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를 교복으로 제정하였다.¹¹⁾ 여학생 복식은 정해진 범위안에서 자유로이 입을 수 있었으며 1920년에 와서야 흰저고리에 검정이나 곤색의 진한색 치마로 거의 통일된 제복형태가 되었다. 淑明 여학교도 3년만에 양장교복에서 韓

9) 박정수, 조효순, 전계논문, p.172.

10) 정충량, 「이화8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67, p.529.

11) 황의숙, 한국 전통복식의 양식 변화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p.37.

服 校服)으로 바꾸어 입게 하였는데 이 시기의 한복 교복으로의 환원은 여학생의 민족의식 함양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사진 4〉 상하동색 한복(이화학당 100년사)

한편 여성들에게도 바깥출입의 허용과 더불어 두루마기가 점차 많이 입히지게 되었는데 남성들의 의례복과 비교해 이는 방한을 위한 목적에 지나지 않았다.¹²⁾

통치마의 교복화는 체육을 장려하기 위함의 발로 있었는데 체육에 대한 중요성도 확대되어 1911년梨花에 배구가 처음소개 되면서 운동복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화학당 초등과에 조보체조(맨손체조)가 등장했고 1914년 학과에서 구기종목의 체육과목이 신설되었다.¹³⁾

이화 학당안에 농구나 정구를 체육종목으로 선택되었고 이로부터 체육시간이 되면 어깨, 허리를 단 무릎을 약간 덮는 치마길이의 통치마를 입었다. 이와 같이 짧은 통치마에 긴 저고리는 그 편리성에 따라 여학생들은 일상복으로도 입게 되었다.¹⁴⁾

또한 이러한 한복형태의 체육복은 한복 속옷인 內衣改良을 초래하여 짧은 통치마나 부르마를 체육복으로 입을 때는 편안한 짧은 사루마다나 속치마를 입게 하였다.

首飾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새로운 형태가 소개되었다. 머리모양은 팜프도어에서 들레머리, 트레머리, 땅은 머리등으로 그 유행이 바뀌었다.¹⁵⁾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교육의 중요성이 신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확실히 인식되어 가면서 학생복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과 소위 新女性으로 불리우던 계층사이에서는 흰선을 두른 통치마나 치마단까지 주름을 잡은 통치마에 긴 저고리 차림이 유행하였다.

모든 여학생의 복장은 白上黑下로 통일되었다. 이에 세부적인 장식으로 학교를 표시하였다. 여기에 버선대신 양말로, 짚신은 고무신과 구두로 바뀌 신게 되었는데 이것또한 한복의 불편한 점을 보완한 한복 변천에 이어 양복의 장점을 받아들인 한·양복혼용의 과도기적 현상이었다.¹⁶⁾



〈사진 5〉 백의흑상의 한복교복(유희경 한국복식사 슬라이드)

통치마의 등장과 함께 치마길이의 변화가 있게되자 자연히 속옷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깊이 못박혀 있던 유교적인 인습이 양장의 셔츠나 팬티 등을 바꾸어 입기는 시기상조인 듯 싶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 양복의 속옷이 도입되자 점차 단속곳대신 '사루마다'라고 하는 무명 팬

12) 김경희, 개화기 여성복식 변천 요인,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61.

13) 김경희, 전제논문, 1993, p.66.

14) 金貞玉, 이모님 金活蘭, 正宇社, 1985, p.38.

15)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교문사, 이화 출판부, p.644.

16) 조효순, 한국의 옷, 밀알 출판사, 1995, p.134.

티를 입었고 어깨허리의 여자바지와 속치마도 등장했다.

1920년 셔츠(Shirt)가 들어오면서 속옷은 일대 변혁기를 맞는다. 즉 속적삼은 셔츠로, 다리속곳, 속속곳, 바지는 팬티로 대응되었고, 단속곳, 너른바지는 사루마다가 대신하였고, 무지기, 대습치마는 속치마로 변화였다.¹⁷⁾

여러종류의 스포츠웨어가 유입되었는데 여학교에 운동복이 소개되자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근대체육의 도입은 여학교의 Sport Wear를 중심으로 한복의 변화를 초래했다. 그것은 체육의 목적과 체육복에도 나타나 있듯이 인간의 생장을 근본으로 한 이화학당의 Miss walter가 고안한 어깨허리로 개량함으로서 한복에 어깨끈을 달아 가슴을 압박하지 않고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으며 위생상으로도 좋다는 판단으로 일반 여성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학생의 유행복식은 속옷의 양장화와 간략화 및 일반복식의 양장화를 선도했다. 이와 같은 內衣의 改良, 內衣의 變遷은 여학생 복식과 양장수용의 외적 變遷要因에 의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여학생들의 치마길이는 짧아지기 시작했고 단화가 많이 착용되었다.

1920년대 중반의 학생들의 머리모양에는 “칩지머리”라는 것이 유행하였다. 또한 앞머리를 약간 내리는 애교머리의 유행은 그당시 신문의 풍자화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것은 단발의 유행이었다.

한편 핸드백이 일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남여간의 내외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우산은 양산으로 바뀌면서 점차 화려한 것이 애용되며 유행하게 되었다.¹⁸⁾



〈사진 6〉 한복 체육복(숙명 50년사)

4. 洋裝校服의 제정(1930-1945)

1) 社會的 背景

1930년대의 시대상황은 세계적인 經濟恐慌으로 심한 혼란기였다. 우리나라의 國民醫療 생활은 매우 궁핍하였고 纖維工業이나 복식문화의 발달이 부진했던 시기로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으로부터 유입된 사야지, 마카오복지, 각종 모직물, 교직물, 수자직, 무표백사야지, 목면, 보일등이 고작이었다.¹⁹⁾ 따라서 이 시기의 조선고유의 풍속은 거의 소멸되고 改良韓服과 양말과 구두를 신은 모습이 눈에 띄게 된다.

2) 洋裝校服과 韓服

1930년대 초반의 일반 여성복식은 저고리가 길고 화장은 짧으며 통치마에 치마단까지 이어지는 주름이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단발머리를 하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은 당시의 전형적인 新女性의 모습이었다.

이 시대의 여자 저고리는 겨드랑이 길이가 13-14cm 정도로 길어졌고 화장은 짧은 것이 이때의 유행이었다.²⁰⁾ 진동, 소매 수구도 넉넉해졌고 배래선은 뚜렷한 곡선 배래가 되었다. 고름형태도 넓고 길어졌으

17) 남윤숙, 한국여학생 복식변천에 대한 역사적 고찰, 수도사대가정파, 1972, p.31.

조효순, 여성복식개량논의, 복식4호.

18) 김경희, 전계 논문, 1993, pp.70-71.

19) 박길순, 김진구 전계 논문, p.112.

20) 김경희, 전계논문.

며 동정도 길어졌다. 전도부인들에게 처음입혀졌고 新女性들에 의해 유행되었다.

쓰개치마가 거의 소멸되었고 淑明 女學校에서는 이즈음 다시 洋服校服을 제정하였다. 숙명을 선두로 많은 학교들이 양장교복을 제정하였지만 梨花는 여전히 한복을 착용하였고 이는 긴 저고리에 짧은 통치마였다.

여학생의 교복이 양장으로 변화되자 일반 여성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고 곧 크게 유행하였다. 양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洋裁 강습회가 늘어났고 衣服 感想會 등이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패션쇼의 효시라 생각할 수 있다.

학생교복의 양장화, 일반부인들의 한복이용, 신여성들의 양장등이 선보인 1930년대는 양장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²¹⁾

1930년대 말에 극에 치달은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여성복식도 남성적인 스타일인 "Military look"으로 변화하였다. 스커트의 모양도 길이가 짧고 끈은 활동적인 것이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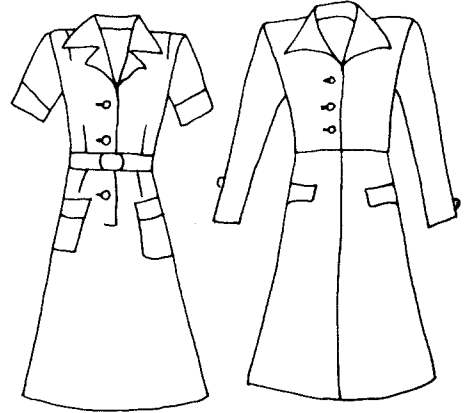
이 시대에 입혀진 양장의 원피스는 대부분 벨트를 매었고 양옆에 포켓이 있는 원피스가 많이 입혀졌다.

한복 착용이 억제되었고 학생복식에 다양했던 개량한복에서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로 변했다. 1938년 일제의 말살정책의 하나로 韓服 着用의 禁止令이 내려지고 洋服着用이 義務化되었다.(1938)

1930년대에 明信여학교가 3년간 양장교복을 착용하였다. 1931년 숙명여학교 교복도 브라우스에 점퍼 스커트에 흰 모자를 썼고, 同德여학교도 주름 스커트에 감색 세일러복 상의를 입었다. 崇義여학교는 하복은 모시로, 동복은 수박색 세루로 된 한복 교복을 입었다.

1934년에는 金活蘭이 斷髮과 양장의 차림으로 이

화학당에서 교편을 잡게 되자 이화학생들에게 斷髮이 유행되었다.



〈사진 7〉 원피스(military look: 유수경, 한국여성 변천사)

京畿는 흰 브라우스에 감색 스커트, 겨울에는 갈색세타를 입었고, 培花는 1935년부터 넥타이 달린 브라우스에 주름치마였고, 덕성도 흰브라우스에 검정 주름치마였다. 또한 이 시기에 학교체육은 사회체육을 지향하게 되었고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의 권장으로 Sports wear 또한 양복의 병용에서 유니폼이 되고 1921년 제1회 조선 정구대회에서는 "선수는 모두 유니폼을 입어야 來場이 可함"으로 되어있다.²³⁾ 1923년 제1회 조선 여자 정구대회에서는 백색 치마 저고리에 긴양말을 착용하였던 것이 흰 저고리에 흰색 스커트를 입었다. 1925년 경에는 흰 부라우스에 검정 부루머를 입었다.²⁴⁾

여성이 참가한 조선 여자 정구대회에서는 몸빼를 치마대신으로 입게되어 그후부터 일반여성들에게도 널리 퍼졌다.

1937년 양장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중일 전쟁 이후에는 여성의 양장이 군복 스타일로 변한 military look이 유행하였다.²⁵⁾

21) 유수경, 전개논문.

22) 유수경, 전개논문.

23) 韓國教育百年史, 신원문화사, 1983, p.192.

24) 이규태, "세상에서 불쌍한 조선 여편네", 개화백경, 신태양사 1988.

25) 俞水敬, 한국여성 양장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89, p.225.

簡單服이라 불리우던 원피스가 이 시기에 주로 유행한 양장이었고 軍服의 영향을 받은 스포츠 칼라, 혹은 스퀘어넥크 라인에 칼라가 없는 단순한 것이었다. 여학생 교복도 전시체제의 상황에 맞게 校服改正이 강요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여학생들에게 몸빼의 착용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1942년 每日新報 3.19일 자에 보면 여학생제복은 치마주름을 잡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물자와 경비가 3할가량 절약된다는 것이다.

전시에 알맞는 검소한 옷차림이 강조되어 교복을 비롯한 여성복식이 '몸빼화' 되었다. 몸빼의 착용을 끝내 반대하던 淑明은 바지 교복을 제정하였고 다른 학교들도 이를 본받았다. 이것은 복식의 역사적 변천에서 外的 變遷 誘因으로 政治的 變化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²⁶⁾

배화학교(배화 70년사)는 끝내 몸빼의 착용을 피하고 검은 sailor 복에 푸른치마를 교복으로 제정하고 해방이 될 때까지 입었고, 貞信은 일제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궁화를 상징하는 보라빛 저고리에 한복을 해방될 때까지 계속 착용하기도 하였다.

몸빼의 등장으로 스커트의 착용은 현저히 줄고 저고리를 입은 여성들도 일제 말기가 되면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상 여학생복식의 변천을 여학생 교복의 변천도에서 살펴보면 1886-1903년까지 전통복식인 한복교복을 착용했고, 1910-1934년까지는 양복보다는 한복교복의 전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38-1940년 한복과 양장교복의 혼용시기로 볼 수 있고, 1938-1945년까지는 양복의 수용기이며 1945-1950년대는 양복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新女性과 天主教, 基督教의 전래, 開化思想의 대두, 集團服飾의 영향과 傳導婦人 新女性들의 의식개혁, 教育의 확대, 社會活動의 확대는 전통적인 한복에서 활동적인 한복의 改良論을 초래했고 甲午更張 이후 선교활동을 하는 전도부인들은 과감하게 짧은 통치

마와 긴 저고리를 입게 되었고 이것은 신여성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일반 여성들의 한복에 영향을 주었고 장옷과 쓰개치마를 벗어버리게 하였으며 衣服 개량안을 유도하게 되었다.²⁷⁾

이때 신여성과 전도부인들이 입었던 저고리의 형태를 보면 조선후기부터 말기에 유행되었던 짧고 단소화되었던 저고리와는 다른 저고리 길이, 진동, 배래, 품이 모두 길고 넓어진 것이었다.

韓日合邦 이후 신여성들과 전도부인들은 단발머리에 양복에 구두를 많이 신었고 여학생들과 함께 주로 남성들이 착용하였던 두루마기를 방한복으로 입기 시작하였다. 이것 역시 서양의 오버코트의 영향으로 간주된다. 역시 신여성들은 짧은 통치마를 많이 입었는데 허리 주름의 폭이 꽤나 넓었고 어깨허리를 단 것이었다.

이와같이 신여성들과 전도부인들 여학생들에서만 유행되던 짧은 통치마와 저고리는 일반여성들의 한복 개량을 유도했다.

1930년대 여성복식은 저고리 길이가 길고 소매가 짧고 주름이 넓은 것이 특징이었고 단발머리에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대다수였다.

신여성들은 양복을 입고 일반여성들은 한복을 주로 입었고 두루마기 대신 코트를 입기도 했으며 전통적인 속옷이 셔츠와 팬티로 대응되었고 그 위에 어깨허리 달린 여자바지나 속치마를 착용하였다. 신여성들과 전도부인들이 추구하는 '女性衣服 改良案'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때 여성복식 개량안을 보면 ① 위생적인 측면에서 어깨허리로 바꾼다 ② 저고리 길이는 길게 한다 ③ 전통적인 형태는 유지시키되 주머니를 달아 기능적으로 변형시킨다. ④ 전통적인 직물과 색채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⁸⁾

1937년대 일제시대의 한복을 보면 저고리 길이가 허리선까지 오고 소매길이가 짧아지고 깃, 동정, 싹이 넓고 길며 진동도 넓어져 활동적인 형태가 된다.

26) 小川安朗, 服飾變遷의 原則, 日本文化出版社, 1981, pp.16~22.

27) 박정수, 조효순, 전개논문, p.171.

28) 매일신보, 1938년 3월 8일, 7월 10일.

〈표 1〉 여학생 교복 변천도

년도	교복	부속품	교명	유형	비고
1886	홍색치마 저고리		이화학당	한복	전통복식
1887	긴치마, 짧은 저고리	쓰개치마	연동(정신)학교	한복	
1903	긴치마 저고리		배화학교	한복	
1907	자주빛 원피스		숙명학교	양복	한복의 변천시기
1908	검정통치마, 흰저고리		성신학교	한복	
1910	검정치마, 흰저고리		이화학당	한복	
1910	긴치마, 흰저고리	상옷, 샷갓	숭의학교	한복	
1920	짧은 통치마, 긴저고리	어깨허리 상하동색	이화학당	한복	
1920	검정치마 흰저고리 자주빛 치마 검정색 세일러복		진명학교	한복 양복 혼용	
1921	감색치마+ 흰저고리		숭의학교	한복	
1930	자주빛 치마+ 흰저고리		숙명학교	한복	
1930	양장교복 착용	우산	명신여학교	한복	
1930	짧은 검정치마 저고리		배화학교	한복	
1931	감색치마+수박색 저고리	검정대시 양말	숭의학교	한복	
1931	점버스커트+브라우스	천모자	숙명여학교	한복	
1938-39	검정치마+ 검정, 자주, 흰저고리		이화학당	한복	
1934	흰브라우스+감색스커트, 각색세타		경기여고		
1938	감색주름치마+감색세일러복	흰색스카프	배화학교	양복	
1938	감색치마+ 청색저고리	검정, 흰색 양말	숭의학교	한복	
1935	흰브라우스+검정주름치마		덕성대학교	한복	양복수용시기
1938	감색주름치마+감색세일러복		동덕여학교	양복	
1938-39	감색점버스커트+흰색 브라우스, 감색보레로	감색넥타이		양복	
1939	검정타이트 스커트+흰브라우스, 스포츠카라상의		이화연전	양복	
1940	몸빼	운동화	이화예전	양복	
1940-45	흰브라우스+감색점퍼스커트		숙명학교	양복	
1940-45	감색주름치마+흰색세일러복	흰색, 감색스카프	배화학교	양복	
1940-45	감색주름치마+흰색상의		정신학교	양복	
1945	몸빼의 교복화			양복	
1948-50	주름스커트, 홀레이스커트, 점퍼 스커트, 보레로, 몸빼, 양복바지			양복	

* 박정수, 조효순, 전개논문, p.171

또한 옷고름 대신 단추가 사용된 것이 저고리의 특징적인 변화이며 일반 여성들은 간단복과 몸빼를 착용하였다.

1940년에 國民服을 제정하고 1942년에는 婦人標準服을 정하였는데 이것은 한복에 가까운 의복들이었고 몸빼와 簡單服이 소개되었다.

1943년 매일신보 5월 18일자 신문에 보면 몸빼의 제도법을 제시하고 있어 일본의 작업복인 몸빼가 대중화 되었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상 개화기 집단 복식의 하나인 여학생 복식은 여학생들의 애국계몽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복식을 애호하면서 전통복식의 장점만을 개량하여 변화, 발전시켜 나갔던 것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본고에서는 開化期와 日帝 植民期를 거치는 기간 여학생복식의 변천과 그에 영향을 주고 받았던 여성복식을 4기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연구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여학생복식을 관찰함으로써 일반 여성복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봄으로서 개화기 1900년부터 1945년까지 한복의 변천과 양장수용의 복식변천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 장옷과 쓰개치마의 폐지이다. 1900대 이것은 조선시대 유교적 윤리관에 의해 팽배하던 내외법의 약화에 가지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말미암아 저고리 길이를 길게 변화를 가한 동기가 되었다.

둘째, 上下同色 한복의 출현을 들 수 있겠다. 초기 이화학당에서 최초의 교복 형태인 홍색의 목면치마 저고리인 상하동색 한복은 서구의 단색 원피스에서 착안되어 만들어졌으며 上下同色배색 한복의 유행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일반여성들이 원피스등 양장을 수용하는데 거부감을 줄이는 역할을 한 요인이 되었다.

셋째, 어깨허리의 고안이다. 학교체육의 도입으로 전통복식 허리띠의 불편함을 개량하여 Miss Walter가 만든 어깨허리는 신체발육을 저해하는 기존의 한복의 단점 개량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학생 복식을 포함한 여성 속치마, 바지등에 그 편리성을 찾아 이용되므로써 여성내의문화변천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넷째, 짧은 통치마의 출현이다. 처음 신여성들에

의해 입혀졌던 긴 통치마는 여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짧은 통치마가 일반여성 복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섯째, 김정치마 흰저고리의 교복을 출현시켰고 한복의 개량화를 유도했다.

여섯째, 교복의 양장화를 들 수 있다. 교복이 양장화되기전 신여성들만이 양장을 착용하였으나 이것이 본격적인 일반복식의 양장화를 활성화 시켰다.

일곱째, 의복변화와 함께 여성 수발법에도 변화가 있어 파마넨트(전발) 팜프도어 머리와 단발을 유도했다.

여덟째, 內衣의 改良이다. 한복 속옷의 종류를 단 순화 시켰고 팬티와 속치마가 생겨났다.

아홉째, 한·양복의 혼용의 시기를 유도했고 양말과 구두 착용을 유행시켰다.

열째, 체육복 및 스포츠웨어의 출현은 일반여성복의 양장화를 유도했다.

【참 고 문 헌】

- 1) 柳吉濬, 西遊見聞 好持接條, 대양서적, 1970.
- 2) 柳喜卿, 한국여성복식의 연구, 한국여성사 II, 이대출판부, 1972.
- 3) _____,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1975.
- 4) 李效再, 개화기 여성의 사회진출, 한국여성사 II, 이대출판부, 1972.
- 5) 朴容玉, 한국근대여성사, 정음사, 1975.
- 6) 崔恩喜, 조국을 찾기까지, 탐구당, 1979.
- 7) 李永獻, 한국기독교사, 권코리아사, 1980.
- 8) 曹南鉉, 開化歌辭, 螢雪出版社, 1982.
- 9) 李學來, 韓國近代體育史研究, 지식산업사, 1980.
- 10) _____, 韓國體育百年史, 신원문화사, 1983.
- 11) 李京子,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1985.
- 12) 金貞玉, 이모님 김활란, 정음사, 1985.
- 13) 金英淑, 한국복식사사전, 민문고, 1988.
- 14) 李圭太, "세상에서 불쌍한 조선 여편네", 개화백경, 신태양사, 1988.
- 15) 趙孝順,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1989.
- 16) _____, 한국인의 옷, 밀알 출판사, 1995.

- 17) 李仁子,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1992.
- 18) 鄭興淑,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2.
- 19) 白英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3.
- 20) 梨花百年史,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67.
- 21) 淑明五十年史 編輯委員會, 숙명오십년사, 禮紀 4289.
- 22) 貞信七十五年史, 貞信女子 高等學校, 1962.
- 23) 培花七十年史, 培花女子 高等學校, 1968.
- 24) 原田淑人, 服飾의 研究, 東洋文庫, 東京, 1914.
- 25) 村山智順, 朝鮮의 服裝, 朝鮮總督府, 서울, 1927.
- 26)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文化出版局, 東京, 1979.
- 27) 遠藤武, 第一卷 服飾編, 文化出版局, 東京, 1979.
- 28) 小川安朗, 服飾變遷의 原則, 日本文化 出版社, 1981.
- 29) Brace P, Dohrnwend and Robert J,smith "Toward a Theory of accituration"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8, 1968.
- 30) Wilbert E.Moore, order and change: Essays in comparative sociology(New york: Jhon and Son).
- 31) Gale, James Scarth, Korean Sketches(장문평 역) 1970.
- 32) Oppert, Ernst, A Forbidden Land(韓治勗 역), 1974.
- 33) 崔明仁, 韓國 開化期의 女性教育問題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논문집 6집, 1970.
- 34) 崔淑鄉, 鄭世華, 開化期 여성의 近代意識의 형성, 한국문화론총 28권, 1976.
- 35) 金英宇, 韓國開化期의 女性教育에 관한 연구, 공주사대 논문집 19집, 1981.
- 36) 金美子, 開化期의 服飾,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1982.
- 37) 孫敬子, 開化期의 女服,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1982.
- 38) 朴京子, 學生服飾,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1982.
- 39) 安仁姬, 우리나라 남녀 중고등학교 校服 變遷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83.
- 40) 李松姬, 開化期 女性服飾의 變遷과 그 要因, 이화여대 대학원, 1984.
- 41) 李相禮, 韓國 스포츠웨어 變遷에 관한 연구, 세종대 대학원, 1985.
- 42) 兪永敬, 韓國 女性洋裝 變遷에 관한 研究, 이화여대 대학원, 1989.
- 43) 南潤淑, 한국 현대 女性服飾 制度의 變遷過程 研究,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1990.
- 44) 金京姬, 開化期 女性服飾變遷要因, 명지대 대학원, 1993.